

보도시점 3.30.(월) 석간 < 3.30.(월) 06:00 >

**“지역사회-지방정부-모태펀드가 함께 투자!”  
중기부, 2026년 「지역성장펀드」 조성지역 선정**

- 대경권(대구·경북), 서남권(광주·전남), 대전, 울산 4개 지역 선정, 3,500억원 이상 모펀드 결성 추진
- 후순위 조성지역에 경남, 전북, 제주, 충북 지정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한성숙, 이하 중기부)는 「2026년 지역성장펀드 참여 지방정부 모집공고」를 통해 실시한 ‘지역성장펀드’ 조성지역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.

심사 결과 ‘지역성장펀드’를 조성할 지역으로 **대경권(대구·경북), 서남권(광주·전남), 대전, 울산 4곳**이 선정되었다.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**총 3,500억 원 규모 이상의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**이다. 또한 **후순위 조성지역**으로 **경남, 전북, 제주, 충북**을 지정하였으며 '27년 예산 등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적인 공모 절차 없이 신속하게 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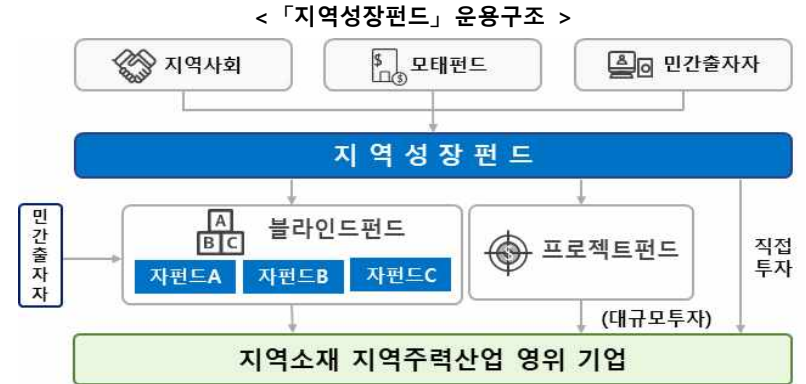
이번 모집 과정에서 **12개 지방정부가 지원**하였으며 지역사회 참여도, 지역성장펀드 활용방안, 지역균형 및 정책부합성 등을 종합 평가하였다. 특히 **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초광역 단위의 벤처생태계를 육성**하기 위해, **초광역형 통합 펀드**를 우대하였다. 이에 따라 **대경권(대구·경북)과 서남권(광주·전남)**은 통합 펀드 조성을 조건으로 우선 선정되었다.

< 2026년 지역성장펀드 선정결과 >

구분	조성지역	모태펀드 출자규모	모펀드 최소 결성액
초광역형	대경권(대구·경북)	750억 원	1,250억 원
	서남권(광주·전남)	750억 원	1,250억 원
단독형	대전	350억 원	500억 원
	울산	350억 원	500억 원

‘지역성장펀드’는 **지역사회 투자 플랫폼**으로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,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·운영하는 **지역 모펀드(Fund of Funds)**이다. 올해를 시작으로 **14개 비수도권 각 지역에 최소 1개 이상의 모펀드를 조성**하는 것을 목표로, **5년간('26~'30) 3.5조 원 이상의 자펀드**를 공급할 예정이다.

모집된 모펀드 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**자펀드(블라인드펀드)** 및 **프로젝트 펀드 출자, 직접투자** 방식으로 운용된다. 특히 **프로젝트 펀드**는 투자건 당 100억 원 수준의 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하여 지역 유니콘 기업 탄생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.



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지방정부는 모펀드 출자를 위해 **지방재정 투자심사**(4월)와 **지방의회 예산심의**(하반기)를 통과하여야 하며,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는 모펀드를 결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. 이후 모펀드 내 한국벤처투자 및 지방정부, 주요 출자자 등이 참여하는 **운영위원회**를 설치하여 자펀드 출자 계획 등 **지역특화 모펀드 운영전략**을 수립한다. **자펀드 운용사**는 지역에 신속하게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**연내 선정**할 계획이다.

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“지역성장펀드는 기업, 대학, 은행 등 **지역사회 구성원이 벤처투자를 경험하고 과실을 향유**할 수 있도록 설계한 **투자 플랫폼**”이라며, “지역기업이 성장하고 더 많은 지역투자자가 유입되는 **지속가능한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**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역성장펀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	책임자	과 장	강신천 (044-204-7710)
		담당자	사무관	박병민 (044-204-7713)
	한국벤처투자 지역성장본부	책임자	주무관	조세곤 (044-204-7715)
		담당자	본부장	장남준 (02-2156-2031)
			팀장	김태연 (02-2156-2047)